

3월12일(월)/벤전1:13~25 (1)

제목: 정신력과 판단력

베드로는 크리스천이 미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야 된다고 하였다(13절). 마음을 강하게 준비하라는 뜻이다. 바라고 기다리는 위대한 영광을 얻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 시련을 겪어 보지 못한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된다. 자기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고 평안만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된다. 고난이 하나도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환란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언젠가는 나를 휘청거리게 할 도전들이 올 것이므로, 미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근신하라고 하였다(13절).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다. 크리스천은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균형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정신력만 강해서 안된다.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을 다 갖추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13절) 비로소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마음도 강해야 하고 머리도 강해야 한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 기질만 강한 사람들이 의외로 걸길로 잘 샌다.

3월13일(화)/벤전1:13~25 (2)

제목: 곧 저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기록’ 을 보시지 ‘겉모양’ 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15~17절). 사람의 겉은 포장일 수 있으니 하나님은 그기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사람의 실체인, 행위를 중요하게 보신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으로 사람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행위’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단수로 쓰였다. 이 말은 행위는 딱 하나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의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하나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전체로 통틀어서 값을 매기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전체로 통틀어서 ‘믿음’ 이었느냐 ‘불신’ 이었느냐로 결정하신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적인 신분에만 집착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주고 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에만 의존하여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확한 저울을 들고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려고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크리스천도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가 전혀 안 따랐던 크리스천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평가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다.

3월14일(수)/벤전1:13~25 (3)

제목: 크리스천은 재생된 자

베드로는 크리스천이란 새로 태어난 자라고 한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에 의해 새로 태어난 자이다(19절). 예수님은 창조이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가 피를 흘리셨다. 베드로는 이것을 약간 다른 표현법으로 크리스천은 죽어야 할 씨에서 난 자가 아니고 죽지 않을 씨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였다(23절).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존재가 아니고 영원할 존재이다(18절). 하나님의 아들이 썩지 않는 분이시다. 그도 한 때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21절). 그러므로 크리스천도 썩지 않을 존재, 예수님에 의해서 재생되었기에 썩지 않는다.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태어나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이다. 그러한 크리스천에게는 한가지 의무가 주어졌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야 할 의무를 가진다(22절).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크리스천은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크리스천은 형제애를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크리스천은 사람을 좋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의무를 저버리면 자격도 상실된다.

3월15일(목)/벤전2:1~10 (1)

제목: 좋을 때 잘 합시다.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1~2절)고 한다. 누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 본 사람이다(3절).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2절).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조금이라도 악의 혼합물이 섞여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모든 인간의 사상과 지혜에는 유해한 것이 섞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된다. 하나님이 인자하다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눈감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악용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촉구하는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본래 마음씨 좋은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서운 법이다. 많이 참은 사람이 일수록 더 폭발력이 크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3절)이라는 말 속에서 긴장감과 비장함을 느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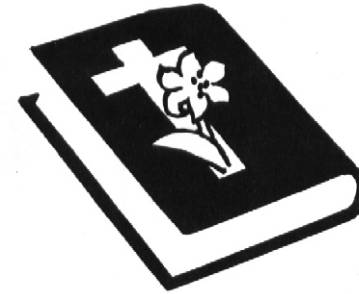
3월16일(금)/벧전2:1~10 (2)

제목: 다리 많이 놓았습니까?

예수님은 건축에서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산돌’ 이시다(4절). 베드로는 시편118편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시편에서 ‘버린 돌’ 은 세상 권세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여 쓸모없는 것으로 버림 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였다. 예수님은 유대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당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은 마치 ‘버림받은 돌’ 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하나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요긴한 ‘산돌’ 이 되게 하셨다. 크리스천도 ‘산돌’ 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또 다른 ‘산돌’ 이다(5절). 크리스천도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산돌’ 즉, 건축 자재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산돌’ 이라는 칭호를 영광스럽게 크리스천에게도 붙여주셨다. 더 나아가 크리스천을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라고 하였다(5절). 이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혁명적인 말이다.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다. 노예이거나, 무학자라도 크리스천이라면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매일 다리 놓는 것이 우리의 직무이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다리 놓는 일을 하고 살았는가? 이 일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 누구신가요?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고잔동 647-2)

☎485-0955, 401-2370(FAX) www.ansan1.org